인터넷은 도움만 받고 베끼지 마세요

■ 개학 앞둔 자녀 겨울방학 숙제 챙기기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방학이 끝나가고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지역 초등학교는 2월 2일 첫 등교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개학을 한다.

개학을 앞둔 요즘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의 방학숙제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주부 이민옥(42·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남은 방학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밀린 방학숙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처럼 자녀의 방학은 부모에게 많은 짐을 안겨준다. 특히 개학을 앞둔 시점에선 방학숙제를 마무리 짓는 게 또 다른 과제다.

그렇다고 부모가 다 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땐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자녀와 함께하는 효과적인 인터넷 활용 숙제법과 초등교육의 '달인' 광주시교육청 문재옥 초등장학관의 조언을 들어봤다.

시간 많이 걸리는 숙제부터 차근차근

부모가 직접 해주면 아이에겐 되레 毒

대화·토론 통해 아이 스스로 해결토록

◇**인터넷 활용하면 효과만점**=아이들은 독후감, 일기, 체험학습 보고서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학숙제에 가장 난감해 한다. 학부모 커뮤니티 사이트인 북키쿠키(www.bookycooky.com)에서는 글쓰기의 기본 방법과 함께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법 등을 전수해 준다.

미술이나 만들기 숙제는 만들기나라(www.gongjak.co.kr)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연령별로 수준에 맞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기본적인 콘텐츠는 무료이며, 숙제와 관련된 내용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다.

주니어네이버(jr.naver.com)는 '방학숙제 고민타파' 코너를 별도로 배치해 방학 과제물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알려 준다.

이 밖에 야후 꾸러기(kr.kids.yahoo.com)는 숙제 및 학습지도 요령을 배울 수 있고, 폴짝닷컴(www.polzzac.com)은 숙제마법사, 시험대비 코너 등을 활용하면 숙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인터넷 활용시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고, 필요한 노하우만 참고한 뒤 자녀 스스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숙제부터 해결**=광주시교육청 문재옥 초등장학관은 "방학숙제는 부족한 학습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 아이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장학관은 특히 "일부 부모들은 급한 마음에 숙제를 직접 해 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교육 자세"라면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체험학습 보고서나 기행문, 관찰 기록문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숙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먼저 아이들이 가장 꺼리는 독후감 쓰기는 틀에 박힌 형식보다는 책을 읽은 뒤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책의 줄거리를 정리하고 자신의 느낌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탐구보고서는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서 주제를 선택해 탐구주제, 탐구동기, 탐구기간, 탐구방법, 알게 된 사실, 느낌 등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된다. 특히 탐구보고서를 과학분야에 대한 주제 보고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일생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를 잡으면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한국 제품 또는 중국 제품은 얼마나 될까?', '아빠가 사용하는 제품 중 한글로 이름이 붙은 제품은 몇 개?' 등이다.

이밖에 체험학습 보고서는 다녀온 장소와 날짜, 견학목적, 동기, 견학내용, 소감 등 6가지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훌륭한 보고서가 된다.

만들기 숙제는 작품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아이 혼자 하는 게 중요하다. 만들기 숙제의 목적은 창작능력 향상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할 시간이 없다면 도구함이나 필통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도 좋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즐거운 겨울방학이 끝나고 다음주면 개학에 들어간다. 29일 오후 화순초등학교에 다니는 나도호(13·6년)·도현(여·10·초3) 남매가 방학숙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캠퍼스 소식

전남대 취사시설 갖춘 생활관 운영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취사 시설을 갖춘 생활관을 운영한다.

29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민간투자시설인 BTL생활관이 들어서면서 운영을 중단했던 구 생활관 4개 동을 최근 리모델링해 입주생을 받고 있다.

450여명이 수용 가능한 이곳은 생활관 내에서 취사를 금지하고 식당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각 층별로 공동 취사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개별 식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한국음식에 적응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던 외국인 학생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관비 또한 식비가 빠지면서 한 학기 이용료가 48만원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고 6개월 이상 장기신청자에게는 이용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전남대 학생이 아닌 형제나 자매 등 가족도 동반 입사가 가능해 입주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 밖에 오는 3월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에 따라 생활관 입주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인선 생활관장은 "자유로운 취사와 생활이 가능한 생활관, 각종 편의시설과 최고급 시설을 갖춘 BTL생활관 등 각자의 형편에 맞게 생활관을 선택할 수 있어 우리 학생들의 생활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과기원 '사이언스 캠프'

광주과학기술원(GIST, 원장 선우중호)이 호남 지역의 과학영재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과기원 내에서 '제1회 사이언스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과학캠프는 내년부터 운영될 광주과기원 학사과정을 과학고 학생들에게 실감나게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론이 아닌 현장실기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미션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해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배양시켜 과학자로 성장하는데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는 광주과학고 10명, 전남과학고 3명, 전북과학고 10명, 제주과학고 5명 등 모두 28명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들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순천대 공옥희 교수 전시회 수익금 이웃돕기

순천대학교 공옥희 교수(만화예술학전공)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에 써 달라며 전시회 수익금 1천300만원을 30일 전라남도공동모금회에 전달한다.

"보성 선소지구는 백악기 초식공룡 온상지"

순천대 김정빈 교수팀 연구 논문 디스커버리 채널 방영

순천대학교(총장 장만채) 과학·환경교육학부 김정빈 교수팀이 캐나다 연구팀과 공동으로 저술한 '보성 선소층의 공룡알과 고토양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연구' 논문이 현재 170여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백악기 한국을 강타한 공룡 베이비붐'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소개됐다.

이 채널에서는 최근 김교수팀과 캐나다 윈저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알 아슴 교수팀이 수년 동안 보성 선소지구에서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200개 이상의 공룡 알과 17개의 공룡알 둥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 화석지는 해안선을 따라 2마일에 걸쳐 발견됐는데, 이는 이 지역이 초식공룡(조각류, 용각류)의 '온상지'였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알 둥지의 배열 상태를 보면, 공룡들은 이 당시 군집을 이루고 살며 많은 알들을 낳고 새끼를 기를 곳으로 보성 선소지구를 선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교수와 알 아슴 교수는 알을 낳았을 때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토양층에서 관찰되는 석회질 단괴와 공룡알 껍질에 대해 탄소와 산소의 안정동위체 특징을 연구했다.

그 결과, 당시 한국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에 이어 우기를 겪었다는 계절적 다양성을 밝혀냈다. 또 공룡알 껍질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근거로 연구자들은 공룡들이 우기 동안 신선한 물을 충분히 마셨으며, 건기에는 수분이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교협 대학평가제 올해부터 폐지

상당수 대학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평가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평가제도가 폐지됐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 자체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근 실시된 대교협의 '2008년 학문분야 평가'를 끝으로 기존 방식의 학문평가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대교협이 이날 경제학·물리학·한의학 등 3개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한 2008 학문분야 평가 결과, 전남대는 경제학·물리학 분야에서 '우수'를 받았으며 동신대는 한의학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